

안도 타다오 건축의 외부공간에 나타난 진입시퀀스의 구성방식

The Compositions of Approaching Sequence in Exterior Space of Tadao Ando's Works

문정민* / Moon, Jeong-Min

안우진** / Ahn, Woo-Jin

고성룡*** / Koh, Seong-Lyong

Abstract

The concept of homogeneous space which was made in during the modern architecture was criticized for making our circumstances uniformly. The difference of place disappeared. The concept of place, however, has been watching in Contemporary Architecture. A basis for the concept of place is 'movement in space' through the sense of the body. Thus, architectural methods for experiencing place are composing the sequence through the continuous time. It is important that the composition of sequences in place makes the spatial experiences with harmonies of architecture and environments in exterior space for people who enter the building. Tadao Ando makes place in terms of experiencing body. Compositions of sequence in his works are expressed very well at the approaching stages in the process of exterior space. This study is to survey the compositions of approaching sequence in Tadao Ando's Works.

키워드 : 안도 타다오, 외부공간, 진입시퀀스

1. 서론

1.1. 연구의 목적과 범위

근대건축에서 만들어진 균질공간의 개념은 인간이 생활하는 모든 환경을 획일적으로 만들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공간의 차이나 특성이 무시되고 어디서나 동일한 공간개념이 건축에 적용된 이유는 근대건축의 정신에서 추상화와 표준화가 가장 중요했기 때문이다.¹⁾ 하지만 현대건축에서는 균질공간으로 상실된 장소의 개념이 다시 대두하게 된다. 장소의 개념이 다시 나타난 배경은 근대사회를 지배해왔던 기계적 사고의 한계를 극복하려고 인간의 신체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러한 사고의 영향으로 건축에서도 신체의 감각으로 직접 공간을 체험하는 것이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되었다. 공간을 신체적 감각으로 체험한다는 건축적 표현인 '공간에서의 움직임'은 현대건축의 주요한 건축어휘로 나타나고 있다.²⁾ 장소의 경험은

시간의 흐름을 통해서 신체로 인식된다. 장소를 체험하는 건축 공간구성 방법은 연속되는 시간 속에서 공간을 체험케하는 시퀀스라고 할 수 있다. 장소성을 만드는 시퀀스는 건물 내부보다는 건물의 외부공간에서 더 잘 드러난다. 그것은 건축의 외부공간이 기능적 측면으로는 건물로 향하는 접근과정이며, 주변환경과 직접 대응하는 장소이기 때문이다.³⁾ 그리고 외부공간에서 환경과 건축이 융합하여 만들어내는 공간체험은 건물을 향해 진입하는 사람에게 건물의 전체적 인상을 주기 때문에 중요하다.

외부공간에서 신체적 체험을 중시하면서 장소성있는 건축을 만드는 건축가로는 안도 타다오⁴⁾를 들 수 있다. 그의 건축에서 시퀀스는 공간 속에서 다양한 건축요소로 구성된다. 즉 안도 타다오의 건축에서 시퀀스는 신체의 움직임을 통해 공간을 체험하게 만드는 중요한 공간구성방법이다. 특히 외부공간에서

1) 原 廣司, 空間<機能から様相へ>岩波書店, 1987, p.35.

2) 전인호, 건축공간에 있어서 공간건축언어 구성체계에 관한 연구, 경기대학교 건축대학원 논문집 제1집, 1997, p.49.

3) 坂本一成의 2인, 建築の外部空間の分節と配置形式, 日本建築學會計劃系論文, 第491号, 1997年 1月, p.91.

4) 川向正人, 境界線上の現代建築, 彰國社, 1998, p.165.

* 정회원, 조선대학교 디자인학부, 실내디자인전공 전임강사

** 정회원, 경상대학교 건축공학과 박사과정

*** 정회원, 경상대학교 건축공학과 교수, 공학박사

건물로 진입할 때 시퀀스의 변화로 장소를 체험하는 방식은 안도 타다오의 건축에서 일관되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므로 시퀀스의 구성을 이용하여 장소성을 나타내는 안도 타다오의 건축 공간에 대한 분석은 의미있는 연구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는 안도 타다오 건축에서 장소성을 나타내는 방법으로 외부공간에서 건물로 진입하면서 나타나는 시퀀스가 무엇이며, 그러한 시퀀스가 어떤 요소와 방법으로 구성되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연구의 목적이다.

1.2. 연구의 범위와 방법

본 연구의 범위는 안도 타다오가 설계한 건축물에서 외부공간에 나타난 시퀀스를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진입과정이 명확히 드러나는 건물에 한정한다. 연구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건축의 장소성을 부각하는 시퀀스의 성격과 구성 방식을 고찰하며, 장소성과 시퀀스의 관계를 이론적으로 고찰한다.

둘째, 안도 타다오가 장소성을 만드는 공간 구성방법에 대해서 고찰한다.

셋째, 안도 타다오가 설계한 건물 중 외부공간에서 건물로 들어가는 진입시퀀스의 구성 요소와 구성방식을 분석하여 결론을 유도한다.

2. 장소성을 나타내는 수법으로서 시퀀스의 구성방식

2.1. 장소성의 의미와 표현방식

(1) 인지과정으로 살펴본 장소성의 의미

장소는 건축에 의미를 만든다. 또한 장소는 자신의 존재위치를 알게 해주는 곳이다. 하지만 반드시 구체적인 형태로 나타나지 않는다.⁵⁾ 건축에서 장소의 의미는 인간의 행위와 직접 관계를 맺고 있다. 장소가 우리의 의식에 나타나는 것은 신체를 중심에 둔 체험에 근거하기 때문이다. 의미를 가진 장소가 우리신체에 어떻게 인식되고 나타나는지가 중요하다. 인간의 신체는 경험에 따라 많은 의미를 만들어낼 수 있는 개인적 세계의 원천이다. 그리고 인간이 건축 공간에서 느낀 경험을 알게 되는 실마리는 신체가 경험한 느낌을 통해 알게 된다. 건축공간의 체험은 처음에는 피로감각⁶⁾으로 알게 되고, 건축물의 성

격은 디자인의 시각적 메시지로써 파악하여 다시 피로감각에 신호를 보내 기억을 불러낸다. 신체 전체에 포함된 이 피로감각은 시각경험에 기본적인 의미를 주고, 동시에 시각경험은 신체에 이러한 의미를 되돌려 준다. 신체의 감각을 일깨우는 또 다른 요소로서 기억을 들 수 있다. 인간은 자신의 내부를 볼 수는 없지만 환경에서 얻은 경험, 세계와 만나면서 우리들의 아이덴티티의 '감정'에 박힌 경험을 내재한 내부세계의 여러 기억으로 발전시킬 수 있다.⁷⁾ 이렇게 인지된 장소는 특별한 장소성으로 인식된다. 그러므로 장소의 인식은 우리의 사고 속에 공간을 체계화하는 과정으로 기억 속에서 나타나며, 건축에서 장소의 인식은 특별한 건축요소에 의한 공간의 한정과 분절을 통해 연속된 공간으로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2) 장소를 규정하는 한정요소

건축물이 대지 위에 세워질 때 건축은 비로소 대지와 관계를 갖는다. 대지에 세워진 건축물 주변에 하나의 영역이 설정되며 특별한 의미가 부여된다. 하나의 건축물은 설정된 영역을 가지면서 완성된다.⁸⁾ 결국 장소가 되는 개념은 영역의 구성으로 나타난다.⁹⁾ 공간의 영역은 경계의 차이로 나타나며 경계의 구조는 장소의 성격에 영향을 주는 요소이다. 경계의 구조는 여러 가지 상태로 고려될 수 있다. 첫째, 하나의 세계에서 다른 세계로 옮겨가는 상태에서 각 영역의 구성을 생각할 수 있다.

두 번째는 통과하기 위해 마련된 구간의 연속과는 별개로 차단하기 위해 절단된 모양도 있다. 그리고 이것이 서로 조합되어 일체로 작동하는 경우도 많다.¹⁰⁾ 그러므로 장소를 만드는 영역은 경계의 차이로서 다양하게 나타난다.

(3) 장소성과 시퀀스의 관계

건축공간에서 장소는 공간에 의미를 주거나 공간의 성격을 주로 규정한다. 장소는 건축물에 다양하게 존재하며 각각 고유한 성격인 장소성을 갖는다. 또한 장소는 크기에 상관없이 다양하게 분포하며 방향성을 갖기도 한다.¹¹⁾ 다양하게 분포하는 각각의 장소는 시간에 따라 서서히 체험되어 공간의 경험이 되며, 시간과 공간이 동시에 체험될 때 시퀀스로서 지각된다. 장소성을 나타내는 시퀀스는 한정된 장소와 공간구성요소의 연결로서 나타나며 동적인 시퀀스의 성격이 강하다. 동적인 시퀀스는 시간 속에서 인간의 움직임에 의해 체험된다.

5)김광현, 건축과 운동, 이상건축, 1998, 11, p.82.

6)K.C.Bloomer, C.W.Moore 지음, 이호진, 김선주 옮김, 신체·지각 그리고 건축, 기문당, 1991, pp.52~53.

외계의 대상물에 대한 인간의 지각을 지배하는 것에 대해 실험적으로 논한 것은 게슈탈트이론이다. 게슈탈트이론은 인간이 지각하는 자극물을 너무 단순화해서 질서를 부여하려고 하지만, 시각적 기준만을 건축미의 기준으로 해석하는 문제점을 나타내고 있다. 환경심리학자인 J.J. 김슨은 촉각에 대한 관심을 기울였으며, 감각기관은 감각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것만이 아니고 적극적으로 추구하는 메카니즘이라고 설명했다. 즉 감각기관은 환경의 정보를 탐구하고 능동적으로 탐사하는 시스템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결국 그의 주장에서 의미있는 것은 기준적

방향계와 피로감각계이다. 피로감각계는 신체 전체의 피부를 포함하는 일종의 촉각으로서, 피부를 통해 감각적 탐지도 가능하다고 그는 생각했다.

7)Ibid, 1991, p.76.

8)保坂陽一郎, 이진민 옮김, 경계의 구조, 한국산업훈련연구소, 1999, p.36.

9)瀬尾文彰, 20世紀建築の空間, 彰國社, 2000, p.126.

10)保坂陽一郎, 이진민 옮김, 경계의 구조, 한국산업훈련연구소, 1999, p.10.

11)瀬尾文彰, 20世紀建築の空間, 彰國社, 2000, p.143.

2.2. 시퀀스를 파악하기 위한 전제와 공간요건

(1) 공간지각을 위한 시간의 연속성

시간에 대한 근대사상의 개념은 선적이고 분리적이었다. 하지만 라이프니체 이후 20세기 초 베르그송은 시간의 지속성에 대해 몰두했다. 그는 인간이 보편적으로 느낄 수 있는 시간을 체험에 의한 심리적인 시간이라고 했다.¹²⁾ 이러한 문제는 건축 공간의 지각에서 동일하게 인식되었다.¹³⁾ 즉 연속된 시간의 개념은 고전의 투시도적 공간개념에서 표현된 단절된 시간이 아니라 연속적인 시간을 통해서 인간이 공간을 체험하기 때문이다. 여기서 공간은 더 이상 눈으로만 바라보는 대상이 아니라 신체의 체험 대상으로 파악된다. 그러므로 공간은 연속된 시간에서 동적인 움직임으로 파악되는 대상이다.

(2) 시퀀스의 정의와 성격

시퀀스의 정의는 이전의 사건이 있고 그것을 받아서 현재의 사건이 일어나는 상황을 말하며, 따라서 일반적으로 계기성(繼起性)이라는 의미가 있다.¹⁴⁾ 실제공간과 인간의 관계에서 살펴보면 변화되는 공간이 눈앞에 있어도 가만히 앉아서 볼 때는 시퀀스를 지각할 수 없다. 즉 공간의 시퀀스는 인간이 어떤 형태로든 움직일 때 인식하는 공간의 계기성이다.¹⁵⁾ 그러므로 시퀀스는 눈으로 지각한 연속된 장면이라고 할 수 있다. 모든 시퀀스는 시작이 있고 마침이 있다. 이때 마지막에 해당하는 부분은 미적으로도 시퀀스의 절정을 이루어야 하지만 기능적으로도 절정을 이루어야 훌륭한 시퀀스를 만들 수 있다.¹⁶⁾

(3) 시퀀스를 파악하기 위한 공간요건

보행하면서 공간을 인식할 때는 정지해서 느끼는 것과는 달리 세세한 디테일보다는 공간의 틀을 느끼게 된다. 시퀀스를 지각하기 위한 실마리는 공간의 개방도와 깊이도를 들 수 있다.¹⁷⁾ 즉 인간은 개방적인 공간이 계속된다면 반응하지 않는다. 또한 폐쇄적인 공간이 계속될 때도 반응하지 않는다. 개방적인 공간에서 폐쇄적인 공간으로 또는 폐쇄적인 공간에서 개방적인 공간으로 공간의 개방도가 변화되는 시점에서 반응하게 된다. 그리고 깊이가 짧은 방향에서 깊이있는 투시방향을 볼 때 인간은 반응하게 되고 그 반대로 마찬가지이다. 그러므로 지루하지 않고 공간적으로 훌륭하게 체험할 수 있는 시퀀스의 공간요건으로 개방도와 깊이도가 중요하며, 이들의 적절한 변화가 시퀀스를 느끼게 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2.3. 장소성을 나타내는 시퀀스의 요소와 구성방식

12) Étienne Klein 지음, 박해영 옮김, LE TEMPS, 영림카디널, 1997, p.93.
13) Jürgen Joedicke 지음, 윤재희, 지연순 옮김, 건축의 공간과 형태, 세진사, 1995, pp.27~30.
14) 材野博司, 庭園から都市へ「シークエンスの日本」, 鹿島出版會, 1997, p.98.
15) Ibid, 1997, p.99.
16) 김광현, 건축과 운동, 이상건축, 2000, 9, p.160.
17) 材野博司, 庭園から都市へ「シークエンスの日本」, 鹿島出版會, 1997, p.104.

(1) 시각적 깊이감에 대한 고려

공간에서 깊이감은 원경·중경·근경을 보는 것과 관련있으며, 시각적 깊이감의 리드미컬한 배치방식이 공간지각의 편안함을 만든다. 즉 건물은 건물자체와 건물을 둘러싼 주변환경인 근경뿐만 아니라 중경·원경을 시각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원경과 중경은 외부에서 조망할 때 건축이 초점을 형성해주므로 입체적이고 풍부한 경관을 구성하기 때문이다.¹⁸⁾ 하지만 공간의 깊이감만으로는 훌륭한 시퀀스를 만들 수 없으며 공간의 개방감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2) 공간의 분절과 접속

건축공간에서 부분과 그 주변사이의 관계를 만들 때는 주변에서 어떻게 부분을 독립시켜 이질적인 것을 만들어내는가와 또한 그렇게 분절된 것을 다시 주변과 어떻게 관계시킬 것인가가 중요하다. 공간의 분절과 접속의 관계는 공간의 개방도와 관련되며, 서로의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장(場)이 설정되어야 한다.¹⁹⁾ 공간의 영역을 한정하여 장소로서 의미를 가지기 위해서는 다른 공간과의 차이가 필요하다. 그러므로 다른 공간과 분절하거나 접속하는 방법을 통해 그 공간의 의미를 부각시킨다. 공간의 분절이나 접속은 영역에서 높이의 차이나 재료의 차이를 이용하여 만들고, 심미적 공간의 성격을 부각하기 위해 물이나 빛과 같은 건축요소를 사용하여 공간을 분절하고 접속하기도 한다.

(3) 건물로의 진입방식

외부에서 내부로 진입할 때 접근방식을 명확히 하기 위해 각 공간의 위계를 명확히 한다. 또한 위계가 시각적으로 명확하지 않은 것도 있기 때문에 숨겨진 위계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위계에 따른 진입방식으로 세 가지를 들 수 있다.²⁰⁾ 첫째 직진(直進)방식이며 대부분 대칭으로 구성된다. 여기에서 경계구성인자는 문, 울타리로서 담, 안뜰, 기둥, 혹은 바닥의 레벨 변화 등이다. 이러한 경계구성인자들을 서로 조합하여 공간의 성격에 따라 위계를 달리한다. 여기에서 첫 번째 위계의 공간에 두 번째 위계의 공간이 겹쳐지고, 다시 세 번째 위계의 공간으로 이어져 계층이 명확해진다. 둘째로 굴절된 진로가 있다. 진로가 굴절되어 있기 때문에 체험자는 공간의 전개를 예상할 수 없다. 세 번째로는 다중(多重)적인 경계를 가진 것으로서 영역을 더욱 명확히 할 때 사용되며 진로를 따라 위계를 높이는 방법과 경계요소를 되풀이하는 방식이 있다.

3. 환경과 융합을 위한 안도 타다오의 건축사고와 구성방식

18) 材野博司, 庭園から都市へ「シークエンスの日本」, 鹿島出版會, 1997, p.143.
19) 保坂陽一郎, 이진민 옮김, 경계의 구조, 한국산업훈련연구소, 1999, p.178.
20) Ibid, 1999, p.172.

3.1. 건축사조의 배경

(1) 전통과 자연의 현대적 변환

안도 타다오의 건축사조는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 번째는 일본의 전통 공간을 빛과 콘크리트라는 건축재료로서 현대적으로 표현하고 있다.²¹⁾ 그리고 두 번째로 '자연-건축-인간'의 관계를 건축에 표현하고 있다. 여기서 '자연-건축-인간'이라는 관계중심의 건축사조를 통해 풍부한 체험공간을 건축에 나타내고 있다. 안도는 형태의 조작보다는 공간의 구축을 통해 건축의 본질을 나타내며, 그 토대로 건축과 환경이 융합된 장소를 설정하고 있다.

(2) 모더니즘과의 연계

안도의 건축에서 나타나는 또 다른 건축적 사조의 근원으로서는 모더니즘과의 연계를 들 수 있다. 특히 근대건축의 기하학적 사고에서 나타나는 건축 형태의 입체성과 질서의 개념을 바탕으로 두고 있다. 안도 건축의 벽은 모더니즘의 긴장된 벽과 유사하고, 빛과 그림자만이 있는 내부공간은 추상적 공간으로 변한다. 안도의 건축은 근대건축의 형태나 공간구성과 유사하지만 지역적인 성격도 강하므로 근대건축과는 다른 접근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그것은 국제적인 것과 지역적인 것 사이의 긴장감을 가진 현대일본건축의 특징²²⁾이 안도의 건축에도 나타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안도 건축의 건축요소와 추상성은 모더니즘 건축과 유사한 부분도 있지만 일본의 지역적 성격과 혼합된 비판적 모더니즘의 성격을 나타내고 있다.

(3) 공간을 체험하기 위한 신체적 사고

안도 타다오는 신체에 근거하여 건축을 다루는 건축적 사고를 한다. 즉 건축을 만드는 과정에서 신체치수와 재질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건물에 신체가 접촉하는 부분에는 반드시 자연 재료를 사용하고 있다.²³⁾ 이렇게 신체적 사고를 하게된 근원은 보편화된 근대합리주의의 비판에 있다. 보편화된 근대합리주의는 모든 대상을 기호화시키고 조작가능한 단위로 추상화시켜서 인간이 느끼는 감정마저도 측량 가능하게 만들어 관리와 통제가 가능하게 했다. 안도는 현대적 상황에서 다시 인간성회복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²⁴⁾ 인간성을 회복하는 방법으로 안도는 신체적 사고를 통해 건축 속에서 자연과 소통가능한 인간의 신체를 다시 회복하려고 했다.

3.2. 공간의 영역과 형태의 구성방법

(1) 패턴화된 영역의 분절

안도 타다오의 공간에서 영역의 분절은 일정한 패턴을 나타

낸다. 대지 전체에 대해 '단힘-열림-단힘'의 패턴으로 어느 정도 일정하게 나타나며, 이 분절은 스케일이나 주변상황과 관계 없이 모든 작품 속에서 찾아볼 수 있다. 모든 작품은 동일한 분절방법의 변화이며 분절은 끊임없이 외부공간을 포함해서 나타나고 있다.²⁵⁾ 영역의 분절은 안도 타다오 건축의 외부공간에서 시퀀스의 변화와 함께 공간의 체험을 극대화하는 방법이 되고 있다. 또한 그의 작품 속에는 미로가 주된 공간테마로 나타나며 때로는 작품전체의 구성을 지배한다.²⁶⁾ 그러므로 미로와 같은 공간은 다양한 영역의 분절과 결합으로 구성되고, 시각적·신체적으로 체험되는 공간이 된다.

(2) 외부공간과 내부공간에 사용된 기하학적 구성

안도의 건축에서 주된 공간형태는 기하학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것은 건축에 관련된 다양한 의미를 응축하며 건축의 존재를 유지하기 위한 방법이다.²⁷⁾ 이러한 공간형태의 기하학적 사용은 건축의 본질을 부각시켜서 체험자에게 공간의 성격을 명확하게 전달하고 건축의 장소성을 분명하게 드러내고자 하는 의도이다. 그의 건축에는 정방형, 장방형과 원 등의 기하형태가 사용되고 있다. 즉 이러한 기하학적 공간구성은 내부공간뿐만 아니라 외부공간에서도 나타나며 내부공간의 구성만큼 복잡하다. 내부공간을 발생시키는 장치가 동시에 외부공간을 발생시키는 장치이다. 그것은 내부와 외부의 구분이 의미없음을 나타낸다.²⁸⁾ 결국 그의 건축에서 외부공간은 건물을 보조하는 수단으로 구성되지 않고 장소의 성격을 준다.

3.3. 환경과 융합하는 건축요소와 구성방식

(1) 주변환경의 시각적 도입

외부공간에서 시퀀스의 구성방식은 18세기 영국건축에서 찾아볼 수 있다. 첫 번째 기존의 자연을 극적으로 구성하는 방법으로서 주변의 자연환경을 인공적으로 만드는 수법이며, 두 번째는 회화적 기법에서 차용한 방법을 이용하여 '장면'을 구성하는 방법이다.²⁹⁾ 안도의 건축에서는 회화적 장면을 공간 속에 도입하는 방법이 자주 나타나고 있으며 원경을 바라볼 수 있는 장치인 벽, 프레임이나 기둥을 이용하여 조망공간을 확보하고 있다. 이렇게 풍경을 건물 속으로 끌어들이며 건물이 들어서는 곳에 자연과 건물이 일체화된 장소를 만들려는 의도는 그의 건축사상과 연결된다.

21) 안도 타다오 건축연구회 지음, 이범재 옮김, 안도 타다오작품집, 기문당, 1991, p.23.

22) 川向正人, 境界線上の現代建築, 彰國社, 1998, p.25.

23) Ibid, 1998, p.165.

24) Ibid, 1998, p.172.

25) 안도 타다오 건축연구회 지음, 이범재 옮김, 안도 타다오작품집, 기문당, 1991, p.11.

26) Ibid, 1991, p.17.

27) 김선일, 안도 타다오의 건축공간구성에 나타나는 계단기법에 관한 연구, 국민대 석사논문, 1994, p.13.

28) 安藤忠雄建築研究所, TADA O ANDO museum guide, 美術出版社, 2001, p.110.

29) 베르나르드 루벤 외 4인 지음, 김영애, 문은미 옮김, Design and Analysis, 도서출판 국제, 2000, p.55.

(2) 체험요소로서 수공간과 계단

수공간은 안도 타다오가 그의 건축에 담고 있는 중요한 자연요소의 하나이다. 건축물 속에서 물은 바라보는 경관요소, 단속하는 경계의 장치, 체험하는 공간의 요소로 사용된다. 그가 추구하는 정신과 감성을 담아내는 건축공간은 물이라는 자연요소에 의해 구체화된다.³⁰⁾ 따라서 안도 타다오의 건축에서 물의 다양한 성격은 인간의 지각체험에 영향을 준다. 또한 그의 건축에서 나타나는 중요한 공간체험요소로는 계단을 들 수 있다. 계단은 건물에서 강한 중심축을 형성하여 모든 요소와 공간들을 통합하는 결정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공간 속에서 계단은 자연스러운 방향성과 기대감을 동시에 갖게 하며 공감각적 체험을 제공하는 요소로 작용한다.³¹⁾

(3) 환경 속에서 자립하는 벽과 기둥

벽은 안도의 건축에서 경계를 정하는 장치로서 영역을 물리적, 심리적으로 고립시킨다. 벽은 자연 속에서 자립하며 인간을 위한 영역을 창출하고 자연을 끌어들이는 장치이기도 하다. 그리고 벽은 외계와 대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내부의 기둥과도 대치하게 된다. 또한 구조적으로 과장된 콘크리트 프레임은 하층의 지지보다는 수사적, 상징적인 중요성을 위해 사용되고 있다. 또한 기둥과 벽은 모든 것을 감싸는 미니멀리즘의 프레임이며 구조적인 것과 상관없이 추상적인 개념으로서 존재한다.³²⁾ 즉 벽과 기둥은 건물의 배치와 형태에 의미를 주는 상징적인 표현이 아니라 공간을 구획하거나 공간을 표현하는 수단으로 사용되었다. 또한 벽과 기둥은 다른 요소를 부가시키지 않고 그 자체로 외부공간에서 영역을 나타내거나 분절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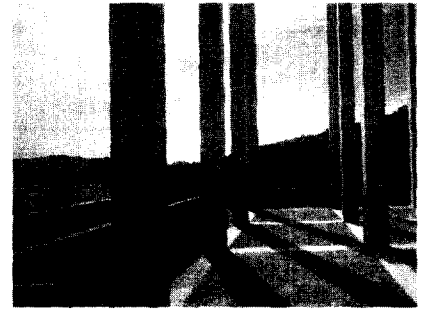
4. 안도 타다오 건축의 외부공간에 나타난 진입시퀀스 구성방식

분석대상은<표 1>에서와 같이 안도 타다오가 초기부터 현재까지 설계한 외부공간을 포함하는 건물중, 시퀀스의 구성을 파악하기 위해 외부환경 속에서 접근로가 명확히 나타난 건축물만을 분석사례로 선정하였다. 또한 건물이 여러 동으로 분산되어 설계된 경우 각 건물을 연결하는 연결공간도 시퀀스를 나타내는 요소이므로 분석에 포함하였다.

4.1. 깊이감과 개방감있는 전망의 확보

(1) 기둥과 벽의 프레임을 이용한 외부경관의 도입

깊이감있는 전망을 확보하려고 콘크리트 프레임이나 여러 개의 수직기둥을 이용하여 관찰자가 중경이나 원경을 바라볼 수 있게 했다. 기둥과 벽의 프레임을 이용하여 전망을 도입하



<그림 1> Children's Museum, Hyogo

는 방법은 각각 다르게 나타났다. 기둥은 경관을 담는 틀로서 신체가 이동함에 따라 각각 다른 기둥이 풍경을 담는 틀이 되어 동적인 전망을 도입했다. 호고어린이박물관과 산토리뮤지움에서 기둥은 동적인 전망을 담는 틀이다. 하지만 벽의 프레임은 움직임이 없는 상태에서 전망을 받아들이는 장치로 작용되었기 때문에 정지상태에서만 조망된다. 명화의 정(庭)과 어린이박물관에서 벽은 프레임을 통해 외부경관을 도입하고 있다.

(2) 전망을 도입하는 시야의 의도적인 차단과 개방

자연환경 속에 건물이 위치할 때 진입하면서 주변경관을 보여주는 수법은 두 가지로 나타났다. 첫 번째로는 건물로 진입하는 도중에 벽을 이용하여 전망을 도입하는 방법이다. 벽은 목표로 한 경관을 전부 보여주지 않고 진입과정에는 주변경관을 조금씩 차단하거나 개방하고 최종적으로 경관의 일정한 부분만을 시각적으로 끌어들이었다. 호고어린이박물관, 수(水)의 사(寺), 산토리뮤지움, 나오시마현대미술관, 치카츠



<그림 2> Water Temple

아스카역사박물관에서 사용되었다. 두 번째는 진입과정에서 목표로 하는 대상경관을 거의 볼 수 없고 건물 속으로 진입해야만 목표한 경관을 보여주는 방법이다. 이것은 건물자체가 경관을 향해 배치하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다. 타임스 I, II, 물의 교회, 히메지문학관, 고조문화박물관은 건물 속으로 들어갔을 때만 목표로 하는 경관을 조망할 수 있다.

(3) 체험요소로서 근경의 수공간

근경, 중경, 원경을 건축물 속으로 받아들이는 방법은 안도의 건축에 많이 나타난다. 근경으로 사용된 수공간은 시각적으로 작용할 뿐만 아니라 신체의 체험요소로 사용되었다. 안도 타다오의 건축에 사용된 수공간은 정적인 성격과 동적인 성격에 따라 다른 체험요소로 작용하였다. 동적인 수공간은 흐르는 물이 사용되었고 이동하는 진입로 주위에 배치되며, 외부에서 진입할 때 물소리와 함께 근경의 시퀀스를 만든다. 히메지문학

30)고군석, Ando Tadao 건축에서 수공간의 의미와 표현에 관한 연구, 영남대 석사논문, 1998, p.24.

31)김선일, 안도 타다오의 건축공간구성에 나타나는 계단기법에 관한 연구, 국민대 석사논문, 1994, p.66.

32)안도 타다오 건축연구회 지음, 이범재 옮김, 안도 타다오 작품집, 기문당, 1991, p.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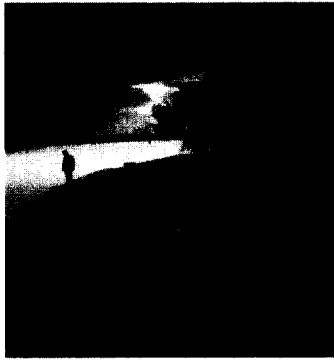
<표 1> 안도 타다오 건축의 외부공간에 나타난 진입시퀀스의 구성방식에 대한 분석

순서	작품명	설계년도	건물 사진	주요 도면	용도	시퀀스의 구성요소	시퀀스 구성방식			비고
							깊이감과 변화있는 전망	공간의 분절과 접속	지형을 이용한 진입방식	
1	타임즈 I, II	1984~1986			상업 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계단 수공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감범으로 들어가는 입구의 크기에 의해 수공간의 장면이 한정됨 근경의 수공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변의 테라스가 한정된 영역의 장소성 확보 장소에 이르는 통로의 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좁은 골목길과 계단을 통한 진입 굴절된 진로 	
2	물의 교회	1985~1988			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공간 길의 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회내부에서 한정된 공간의 틀에 의해 수공간과 중경·원경을 동시에 조망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회공간 내부가 신성한 장소성을 가짐 미로와같은 공간을 거쳐 장소에 이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계단을 통한 진입 굴절된 진로 	
3	어린이 박물관	1987~1988			박물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공간 기둥 길의 구성 계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벽과 기둥의 프레임을 통해 중경·원경을 도입 체험할 수 있는 근경의 수공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각 건물의 영역성 확보 조망공간에 의한 영역의 분절 벽에 의한 방향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계단을 통한 진입 굴절된 진로 	
4	수(水)의 사(寺)	1989~1990			박물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공간 벽 길의 구성 계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근경, 중경, 원경을 도입 근경 수공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벽에 의한 시야의 제한과 방향성 수공간에 의한 건물의 영역의 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평진입 굴절된 진로 	
5	명화의 정(庭)	1988~1994			아외 미술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공간 길의 구성 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벽의 분절과 프레임에 의한 장면 도입 근경과 중경의 수공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계단참의 장소성 확보 길과 계단에 의한 공간의 접속 계단에 의한 수직 영역의 분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간의 굴절에 의한 진입 수평진입 	
6	산토리 뮤지움	1991~1992			박물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공간 기둥 길의 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둥에 의한 장면의 한정 바다에 면한 천수공간 근경, 중경과 원경의 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천수공간의 장소성 확보 벽과 기둥의 의한 영역의 분리와 방향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계단과 램프를 통한 진입 굴절된 진로 	
7	히메지 문학관	1988~1994			기념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공간 길의 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진입공간으로서 근경의 수공간 서로 다른 수공간의 대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공간에 의한 방향성 벽을 이용한 공간의 분절 	<ul style="list-style-type: none"> 램프를 통한 진입 굴절된 진로 	
8	나오 시마 현대 미술관	1988~1991			미술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벽 길의 구성 계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경·원경의 도입 벽을 이용한 시야의 제어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개별 건물의 영역성 확보 영역을 접속하는 길의 구성 계단공간의 영역성 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계단과 길을 통한 진입 굴절된 진로 	
9	차카츠 아스카 역사 박물관	1990~1991			박물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길의 구성 수변공간 계단 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벽과 계단을 이용한 전망의 도입 계단에서 중경, 원경의 도입 중경으로서 수공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계단공간의 영역성 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계단과 길을 통한 진입 굴절된 진로 	
10	고조 문화 박물관	1991~1996			박물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길의 구성 계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망대에 의한 조망의 확보 건물사이의 길에 의한 중경, 원경의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개별건물에 의한 영역의 분리 영역을 접속하는 길의 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계단을 통한 진입 굴절된 진로 	

관, 명화의 정(庭), 효고어린이박물관의 진입공간에서 동적인 수공간을 통해 체험된다. 정적인 수공간은 주로 연못, 바다와 같은 수공간이며, 잔잔한 물의 심리적인 성격을 이용하여 원경·중경을 구성하는 조망의 대상으로 사용되었고 신체적 체험요소

로서 사용되었다. 타임즈 I, II, 효고어린이박물관, 명화의 정(庭), 히메지문학관에서 정적인 수공간은 건물의 안쪽에 위치하며 진입공간과는 다른 분위기를 연출했다. 이러한 수공간은 때로는 동시에 사용되어 서로 대비되는 공간구성요소로 사용되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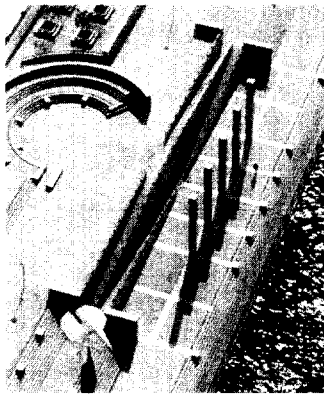
다. 건축에서 수공간이 근경을 만드는 요소이면서 물의 다양한 현상도 시퀀스를 일으키는 요소임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3>Children's Museum, Hyogo

4.2. 영역을 강조하는 공간의 분절과 접속

(1) 조망을 위한 영역의 확보



<그림 4>Suntory Museu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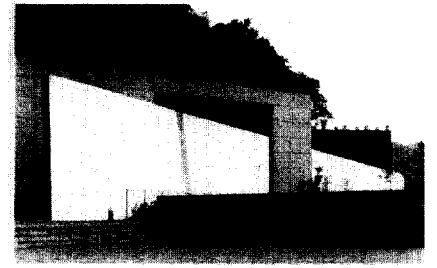
조망을 위해 마련된 공간은 안도 건축의 독특한 특징중의 하나이다. 외부공간에서 주변 환경을 조망하는 공간구성은, 첫 번째 외부공간에서 독립된 전망대의 형태로 만들어졌다. 전망대의 형태를 이룬 조망공간은 건물과 건물을 연결하는 연결공간에 주로 많이 나타났으며, 명화의 정(庭)에서 각종의 테라스나, 효고어린이박물관, 히메지문학관, 고조문화

박물관에서 나타났다. 두 번째는 외부공간 자체가 조망을 위해 구성되는 방법이다. 조망을 위한 공간이 단독으로 구성되기 위해서 기둥, 계단을 사용하여 영역을 한정하였다. TIME'S I, II, 효고어린이박물관과 산토리뮤지움의 기둥, 치카츠아스카박물관과 나오시마현대미술관의 계단은 그 자체가 조망할 수 있는 공간이며 근경·중경·원경을 바라볼 수 있는 장소이다.

(2) 영역과 방향성을 강조하는 벽의 사용

외부공간에서 벽은 건물과 주변의 영역을 강조하는 경계요소로 사용되었다. 건물과 주변의 외부공간을 강조할 때 벽으로 경계를 만들고 건물을 배치하고 외부공간을 정리한다. 이렇게 건물과 주변공간을 통합하는 수단으로서 기하학을 사용하였다. 내부공간뿐만 아니라 외부공간도 기하학적 구성으로 조절된다. 물의 교회, 명화의 정(庭), 히메지문학관에서 외부공간을 한정하고 전체적으로 통합하는 수단으로서 벽을 사용했다. 또한 분리된 영역을 연결하거나 하나의 영역으로 진입할 때 신체에 방향성을 주는 요소로서 길과 함께 벽을 사용하였다. 여기서 방

향성은 건물을 동선의 성격이라기보다는 전망과 신체의 체험을 유도하는 성격이다. 영역을 연결하는 공간적인 요소는 길이지만 길의 한쪽이나 양쪽에 세워진 벽은 공간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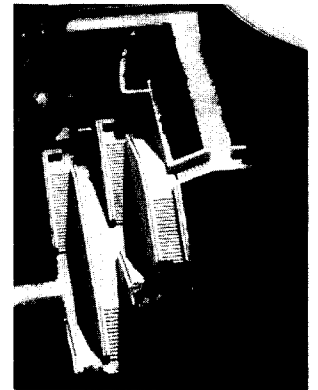
<그림 5>Children's Museum, Hyogo

방향성을 제어하는 요소이다. 특히 단독 건물의 외부공간에서, 건물로 들어가기 직전까지 신체의 방향성을 주는 요소로 벽이 사용되었다. 효고어린이박물관, 수(水)의 사(寺), 명화의 정(庭), 나오시마현대미술관, 치카츠아스카역사박물관에서 사용되었다. 하지만 건물의 규모가 크고 서로 분리된 영역이 많은 경우 영역의 강조와 연결을 위해 방향성을 주는 요소가 함께 외부공간을 구성하였다.

4.3. 지형을 이용한 다양한 진입방식

(1) 레벨변화를 이용한 다양한 형태의 접근로

외부공간은 지형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구성된다. 건물이 산중턱이나 굴곡이 많은 대지에 배치될 경우 대지의 형태에 맞게 수직적인 이동을 할 수 있는 다양한 공간구성이 나타났다. 특히 고저차가 높을 때 계단이나 램프와 같은 상하이동장치로 접근로를 만들어 시퀀스의 변화를 일으키면서 진입할 수 있게 했다. 레벨차가 없는 평지인 경우



<그림 6>Museum of Gojo Culture

에도 의도적으로 레벨의 변화를 만들고 건물자체에 경사로나 계단을 만들어서 신체의 움직임에 유도하고 있다. <표 1>의 사례건물에서는 수평변화보다는 수직변화를 통해 시퀀스를 풍부하게 만들고 있다.

(2) 굴절된 진로에 의한 진입방식

외부공간에서 건물로의 진입은 건물과 주변공간의 관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넓은 외부환경 속에 건물이 배치될 때 진입방식은 정면의 건물을 향해 나아가는 직진진로가 아니라 의도적으로 우회하여 건물의 모습을 전체적으로 바라보면서 진입하는 굴절된 진로를 사용하였다. 이 방법은 산토리뮤지움, 히메지문학관, 나오시마현대미술관, 치카츠아스카역사박물관, 고조박물관에서 나타났다. 건물의 규모가 작고 제한된 상황에 배치되어 외부공간에서 진입길이 짧은 경우는 긴 벽이나 공간의 굴절을 이용하여 건물의 모습을 감추기 위해 의도적으로 진

입로를 길게 만들고 있다. 이러한 예는 타임즈 I, II, 물의 교회, 수(水)의 사(寺), 명화의 정(庭)에서 나타났다.

5. 결론

이상으로 안도 타다오 건축의 외부공간에 나타난 진입시퀀스의 구성방식을 살펴보았다. 안도 타다오의 건축에서 진입시퀀스의 구성은 다양한 건축요소로 신체적 체험을 일으키면서 장소성을 만들고 있다. 특히 외부공간에 나타난 시퀀스는 근대 건축에서 배제된 풍부한 지각체험을 일으키고 건축공간을 환경과 어떻게 융합시킬 것인지에 대한 중요성을 일깨워주면서 인간과 자연의 관계를 회복시켜주는 가능성을 보여준 예라고 할 수 있다.

안도 타다오의 건축의 외부공간에 나타난 진입시퀀스 구성 방식은 다음과 같다.

첫째 깊이감과 개방감있는 전망을 얻기 위해 세 가지 방법이 사용되었다. 기둥과 벽의 프레임을 이용하여 전망을 확보했으며, 기둥은 동적인 전망을 위해 사용되었고 벽의 프레임은 정적인 전망을 위해 사용되었다. 그리고 의도적으로 벽을 이용하여 시야를 제어하여 전망을 도입하고 있다. 또한 근경이 되는 수공간은 신체의 체험요소서로도 작용하였다.

두 번째 영역을 강조하는 공간의 분절과 접속으로, 조망공간을 위한 영역을 외부공간에 만들거나 건물자체에 조망영역이 만들어졌다. 그리고 영역과 방향성을 강조하기 위해 벽이 사용되었다. 분리된 영역을 강조하는 경계요소인 벽을 전체를 통합하는 수단으로 사용하였으며, 영역간의 연결수단으로 사용된 벽은 신체의 방향성을 주는 역할을 하였다.

세 번째, 지형을 이용한 다양한 진입방식을 볼 수 있었다. 지형의 레벨을 이용하여 계단이나 램프와 같은 상하이동장치를 사용하였다. 그리고 외부공간에서 건물로 진입할 때 직진진로보다는 건물의 변화된 모습을 전체적으로 바라보면서 접근하는 굴절된 진입방식을 취했다. 평지인 경우는 의도적으로 벽이나 굴절된 공간을 이용하여 진입공간에 변화를 주거나 확장하는 방법이 사용되었다.

안도 타다오는 장소성있는 건축을 만들기 위해 건축과 주변 환경을 융합하고 신체와 관계시키고 있다. 건축의 장소성을 만드는 방법인 시퀀스는 근대건축에 의해 상실된 공간의 의미를 회복하는 수단이며 신체의 감각을 통해 공간을 체험할 수 있는 공간구성방법이기 때문에 계속 연구되어야 할 대상이라고 할 수 있다.

참고문헌

1. 건축과 환경, Tadao Ando, 2001.
2. 김광현, 건축과 운동, 이상건축, 1998, 9.

3. 김광현, 건축과 운동, 이상건축, 2000, 9.
4. 베르나르드 루벤 외 4인, 김영애·문은미 옮김, Design and Analysis, 도서출판 국제, 2000.
5. 안도 타다오 건축연구회지음, 이병재 옮김, 안도 타다오작품집, 기문당, 1991.
6. 長澤 泰 外 2人 編, 環境と空間, 朝倉書店, 1997.
7. 宮川英二, 김태국 옮김, 건축의 공간, 명보문화사, 1990.
8. 川向正人, 境界線上の現代建築, 彰國社, 1998.
9. 瀬尾文彰, 20世紀建築の空間, 彰國社, 2000.
10. 안도타다오건축연구소, TADAO ANDO museum guide, 美術出版社, 2001.
11. 原 廣司, 空間<機能から様相へ>岩波書店, 1987.
12. 材野博司, 庭園から都市へ「シークエンスの日本」, 鹿島出版會, 1997.
13. 保坂陽一郎, 이진민 옮김, 경계의 구조, 한국산업훈련연구소, 1999.
14. 新建築, TADAO ANDO, 1991.
15. Étienne Klein지음, 박해영 옮김, LE TEMPS, 영림카디널, 1997.
16. Grant W.Reid, 이제화·김동필 옮김, 풍경의 구성과 연출, 대우출판사, 1992.
17. Jürgen Joedicke, 윤재희·지연순 옮김, SPACE AND FORM IN ARCHITECTURE, 세진사, 1995.
18. PHAIDON, TADAO ANDO, 1996.
19. GA DOCUMENT EXTRA01, TADAO ANDO, 1995.
20. 고군석, Ando Tadao건축에서 수공간의 의미와 표현에 관한 연구, 영남대 석사논문, 1998.
21. 김선일, 안도 타다오의 건축공간구성에 나타나는 계단기법에 관한 연구, 국민대 석사논문, 1994.
22. 坂本一成의 2인, 建築の外部空間の分節と配置形式, 日本建築學會計劃系論文, 第491号, 1997年 1月.
23. 전인호, 건축공간에 있어서 공간건축언어 구성체계에 관한 연구, 경기대 건축대학원 논문집 제1집, 1997.

<접수 : 2001. 10. 31>